

파생어

송철의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파생어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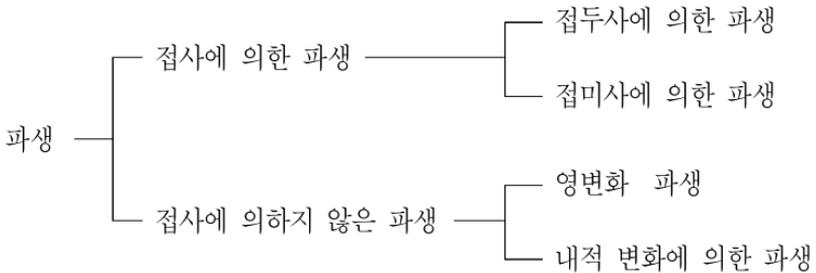
파생어란 일반적으로 그 어간의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파생접사인 단어를 말한다. 여기서 직접 구성 요소란 둘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구성체를 일차적으로 나누었을 때 나뉘어 나온 각각의 요소를 지칭한다. 예컨대 '손가락질'은 일차적으로 '손가락'과 '-질'로 나뉘는바, '손가락'과 '-질'이 '손가락질'이라는 구성체의 직접 구성 요소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손가락질'의 직접 구성 요소 중의 하나인 '-질'이 파생접사이므로 '손가락질'은 파생어가 되는 것이다.

대개의 경우는 어떤 구성체(혹은 단어)가 파생어인가 아닌가를 판별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쉽게 판별할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합성어인가 파생어인가를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해돋이'의 경우, 이것이 일차적으로 '해돋 + -이'로 분석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해 + 돋이'로 분석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는바, 전자와 같은 태도를 취하면 '해돋이'는 파생어가 될 것이고, 후자와 같은 태도를 취하면 합성어가 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해돋이'와 같은 단어를 파생어로 보려는 쪽이 우세한 편이나 파생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면이 없지 않다.

2. 파생(파생어 형성)의 유형

하나의 어기(어근이나 어간)로부터 파생어를 형성해 내는 방법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다. 가장 일반적인 유형은 접사(파생접사)에 의한 파생이다. 접사에는 접두사, 접미사, 접요사가 있을 수 있는데, 국어에는 접요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어의 접사에 의한 파생에는 접두사에 의한 파생과 접미사에 의한 파생만 있다.

그밖에 좀 특이한 유형으로서 영변화 파생(영파생)과 내적 변화에 의한 파생이 있다. 이들은 실질적인 접사가 관여하지 않는 파생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영변화 파생은 하나의 단어(어간)가 형태상의 변화 없이 통사범주(품사)를 바꾸는 경우를 말하고(빗-:빋) 내적 변화에 의한 파생은 어간 내부의 모음교체나 자음교체에 의하여 파생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파랗다:퍼랗다, 보랗다:뽀랗다). 이상의 내용을 간략히 도표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은 분류 이외에 파생의 유형을 '외적 파생'과 '내적 파생'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고, '어휘적 파생'과 '통사적 파생'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외적 파생이란 대체로 실질적인 접사가 첨가되어 이루어지는 파생을 의미하고 내적 파생이란 실질적인 접사의 첨가 없이 이루어지는 파생(영변화 파생과 내적 변화에 의한 파생)을 의미한다. 어휘적 파생이란 어기의 품사(혹은 통사적 기능)를 바꾸지 않는 경우를 말하고, 통사적 파생이란 어기의 품사를 바꾸거나 통사적 기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를 말한다. '짓- + 밟

다 → 짓밟다'나 '걸레 + -질 → 걸레질'은 어기의 품사를 바꾸지 않으므로 어휘적 파생이고, '지우- + -개 → 지우개'나 '많- + -이 → 많이'는 어기의 품사를 바꾸므로 통사적 파생이다. 사동사 파생과 피동사 파생은 어기의 품사를 바꾸지 않지만 통사적 기능을 바꾼다고 보아서 통사적 파생으로 취급한다.

3. 파생어 형성의 실제

3.1. 접두사에 의한 파생

접두사는 어기의 품사를 바꾸지 못하고 어기에 의미만 첨가하며 생산성도 일반적으로 접미사만큼 높지는 못하기 때문에 접두사에 의한 파생은 접미사에 의한 파생에 비하여 단조로운 양상을 보여 준다. 물론 접두사 중에 어기의 품사를 바꾸어 주는 예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한자어 접두사 '매(每)-'는 명사를 부사로 바꾸어 주며(일(명) → 매일(부), 달(명) → 매달(부)), '메-'는 동사를 형용사로 바꾸어 준다(마르다(동) → 메마르다(형)). 그러나 이들은 매우 예외적인 것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접두사 중에는 명사에 붙는 것(군-, 맨-, 풋-, 참-, 시(嫗)-, 만-), 동사에 붙는 것(뒤-, 들-, 되-, 휘-), 형용사에 붙는 것(새/시-, 셋/싯-), 명사와 동사에 다 붙는 것(덧-, 짓-, 헛-)이 있는데, 명사에 붙는 것이 가장 많다. 부사에 붙는 것은 없는 듯하다.

〈명사에 붙는 접두사〉

군-: 군소리, 군침, 군불, 군살, 군말, 군손님, 군손질, 군식구, 군입정

풋-: 풋고추, 풋과일, 풋곡식, 풋벼, 풋보리, 풋콩, 풋바심, 풋김치, 풋사랑

〈동사에 붙는 접두사〉

되-: 되돌아보다, 되묻다, 되받다, 되새기다, 되살다

휘(휩)-: 휘갈기다, 휘감다, 휘날리다, 휘두르다, 휘젓다, 휩싸다, 휩쓸다

〈형용사에 붙는 접두사〉

새/시-: 새빨갳다/시빨갳다, 새파랗다/시퍼렇다, 새까맣다/시꺼멓다

셋/짓-: 셋노랗다/짓누렇다

〈명사와 동사에 다 붙는 접두사〉

짓-: 짓고생, 짓망신

 짓구기다, 짓누르다, 짓밟다, 짓이기다, 짓쪼다, 짓몽개다

헛-: 헛기침, 헛고생, 헛걸음, 헛물, 헛배, 헛일, 헛농사, 헛소리, 헛말,

 헛수고

 헛늬다, 헛디디다, 헛돌다, 헛먹다, 헛보다, 헛듣다

3.2. 접미사에 의한 파생

파생어 형성에 있어서 가장 다양하면서도 생산적인 양상을 보여 주는 것은 접미사에 의한 파생이다. 접미사에는 여기에 의미만 첨가시켜 주는 것도 있고, 의미를 첨가시켜 줄 뿐만 아니라 어기의 문법적 성질(품사 등)을 바꾸어 주는 것도 있다. ‘가위질’의 ‘-질’은 여기에 의미만 첨가시켜 주는 예이고, ‘지우개’의 ‘-개’는 여기에 의미를 첨가시켜 줄 뿐만 아니라 어기의 품사도 바꾸어 주는 예이다. 접미사에 의한 파생어 형성에는 명사 파생, 동사 파생, 형용사 파생, 부사 파생이 있다.

명사를 파생시키는 생산적인 접미사로서는 ‘-음, -기, -이, -개/계, -질, -장이/쟁이’ 등이 있다.

-음: 웃음, 울음, 믿음, 춤, 잠, 기쁨, 슬픔, 즐거움, 괴로움

-기: 달리기, 던지기, 더하기, 곱하기, 양치기, 크기, 굵기, 밝기

-이: 놀이, 먹이, 미닫이, 구두담이, 손잡이, 애크눈이, 절름발이, 길이, 높이, 깊이

-개/계: 덮개, 지우개, 집계, 지계, 이쭈시개, 오줌싸개, 똥싸개

-질: 가위질, 부채질, 결눈질, 싸움질, 주먹질, 고자질, 서방질, 군것질
 -장이/쟁이: 석수장이, 요술장이, 땀장이, 점장이; 겁쟁이, 영감쟁이,
 멧쟁이

이들 접미사 중 '-음, -기, -이'는 상호 배타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특성이 있다. 즉 어떤 동사나 형용사로부터 명사를 파생시킬 때, 이 세 접미사 중 하나로부터만 명사를 파생시키는 것이다.

	-이	-음	-기
놀-	놀이	*	*
높-	높이	*	*
죽-	*	죽음	*
기쁘-	*	기쁨	*
달리-	*	*	달리기
굽-	*	*	굽기

'-음'과 '-기'는 명사형어미와 그 형태가 같아서, 이들이 결합된 어떤 언어 형식이 파생명사인지 동사의 명사형인지를 외형상으로는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특징도 가진다. 따라서 파생명사인지 명사형인지는 수식관계나 전후 문맥을 참고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음 예문에서 ①의 '웃음'은 관형어(호탕한)의 수식을 받으므로 파생명사이고, ②의 '웃음'은 부사(자주)의 수식을 받으므로 동사의 명사형이다.

그가 오늘따라 호탕한 ①웃음을 자주 ②웃음은 다 까담이 있다.

'-장이'와 '-쟁이'는 기원적으로는 같은 것이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의미를 고려하여 편의상 나눈 것이다. 기술자를 뜻할 때는 '-장이'를 붙이고 그렇

지 않을 때는 ‘쟁이’를 붙인다(표준어 사정 원칙 9항). 따라서 ‘갯장이’는 ‘갯을 만드는 기술자’를 뜻하고, ‘갯쟁이’는 ‘갯을 쓴 사람’을 뜻한다.

동사를 파생시키는 접미사로는 사·피동사 파생의 ‘-이-, -히-, -리-, -기-’ 등과 어근에 붙어서 동사를 파생시키는 ‘-거리-, -대-, -이-’ 등이 있다.

사·피동사 파생: 먹이다/먹히다, 죽이다, 쓰이다, 잡히다, 놀리다, 남기다

-거리-: 건들거리다, 비틀거리다, 끄덕거리다, 기웃거리다, 들락거리다, 덜컹거리다

-대-: 건들대다, 비틀대다, 으스대다, 비비대다, 중얼대다, 덜컹대다, 나대다

-이-: 글썽이다, 끄덕이다, 깜박이다, 뒤척이다, 속삭이다, 울먹이다, 움직이다

‘-거리-’와 ‘-대-’는 의미 차이가 거의 느껴지지 않으나, ‘미끈거리다’는 되지만 ‘미끈대다’는 안 된다는가, ‘으스대다, 나대다’는 되지만 ‘으스거리다, 나거리다’는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세하게나마 의미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형용사를 파생시키는 접미사로는 ‘-하-, -스럽-, -답1-/답2-, -롭-, -다랗-’ 등이 있다.

-하-: 깨끗하다, 고요하다, 씩씩하다, 조용하다, 깊숙하다, 다정하다

-스럽-: 바보스럽다, 걱정스럽다, 창피스럽다, 촌스럽다, 어른스럽다, 자랑스럽다

-답1-: 정답다, 꽃답다, 아름답다, 아리뭇다

-답2-: 남자답다, 여자답다, 어른답다, 학생답다

-롭-: 이롭다, 해롭다, 지혜롭다, 향기롭다, 명예롭다

-다랗-: 굵다랗다, 가느다랗다, 기다랗다, 높다랗다, 널따랗다, 알따랗다

‘-답1-’과 ‘-답2-’는 동일한 접미사인 듯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 ‘-답1-’은 자음으로 끝나는 어기에만 결합되지만, ‘-답2-’는 그러한 제약을 받지 않는다. 둘째, ‘-답1-’은 명사와 어근에 다 결합될 수 있으나 ‘-답2-’는 명사에만 결합된다. 셋째, ‘-답1-’은 명사구에 결합되지 못하나(*남녀가 따듯한 정답게 앉아 있다), ‘-답2-’는 명사구에도 결합될 수 있다(영이는 언제나 배운 여자답게 행동한다). 이와 같이 ‘-답2-’는 명사구에도 결합되기 때문에 ‘-답2-’는 파생접미사라고 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롭-’은 ‘-답1-’과는 달리 모음으로 끝나는 어기에만 결합되는데, 현대국어에서는 이들이 별개의 형태소(접미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중세국어에서는 한 형태소의 이형태들(-듭/롭-)이었다.

‘-하-’와 ‘-스럽-’, ‘-스럽-’과 ‘-롭-’은 그 의미 차이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죄송하다/죄송스럽다’나 ‘수고롭다/수고스럽다’는 의미 차이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스럽-’과 ‘-답2-’도 의미 차이가 분명하지는 않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미묘한 의미 차이를 드러낸다. 즉 ‘어른스럽다’와 ‘어른답다’의 경우, ‘어른스럽다’는 ‘어른은 아니지만 어른에 가까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뜻하고 ‘어른답다’는 ‘어른인 사람이 어른으로서의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그 아이는 어른스럽다’는 성립하지만 ‘그 아이는 어른답다’는 성립하지 않으며, ‘그 어른은 정말 어른답더라’는 성립하지만 ‘그 어른은 정말 어른스럽더라’는 성립하지 않는다.

부사를 파생시키는 접미사로는 ‘-이’와 ‘-히’가 있는데, 여기가 어근일 때에는 어떤 경우에 ‘-이’가 결합되고 어떤 경우에 ‘-히’가 결합되는지를 판별하기가 쉽지 않다.

- 이: 가벼이, 높이, 많이, 반가이; 집집이, 틈틈이; 깨끗이, 반듯이,
높직이; 일찍이
- 히: 가만히, 순수히, 조용히, 철저히, 급히

3.3. 영변화 파생

영변화 파생이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떤 단어(어간)가 형태상의 변화 없이 통사범주(품사)를 달리하여 쓰이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결국 동일한 형태의 한 단어가 두 가지 품사로 기능을 수행하는 셈이 되므로 ‘품사의 통용’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음식을 잘못 먹다’에서의 ‘잘못’(부사)과 ‘잘못을 저지르다’에서의 ‘잘못’(명사), ‘키가 크다’에서의 ‘크다’(형용사)와 ‘화초가 잘 큰다’에서의 ‘크다’(동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현대국어에서 발견되는 영변화 파생에는 다음과 같은 예들이 있다.

동사(어간)/명사: 되-/되, 띠-/띠, 빗-/빗, 신-/신, 품-/품

명사/부사: 잘못, 오늘, 여기

형용사/동사: 크다, 길다, 밝다

그런데 영변화 파생에서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단어들을 영변화 파생의 짝으로 간주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세 가지 기준이 제시되었다. ‘형태가 동일할 것, 의미상의 관련성이 있을 것, 품사가 다를 것’이 그것이다. 위에 제시된 예들은 모두 이 기준에 맞는 것들이다. 그러나 ‘쓰다’(苦, 형용사)와 ‘쓰다’(書, 동사)는 형태가 동일하고 품사가 다르긴 하지만 의미상의 관련성이 전혀 없어서 영변화 파생의 짝이 되지 못한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느 쪽에서 어느 쪽이 파생되었는지를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동사(어간)/명사’의 경우, 현재로서는 어느 쪽에서 어느 쪽이 파생되었는지를 판별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3.4. 내적 변화에 의한 파생

‘빨강다’와 ‘빨질다’, ‘보양다’와 ‘뽀양다’는 어간 내부의 모음이 교체되거나

자음이 교체되어 다른 단어가 된 예들이다. 이와 같이 어기의 일부 형태가 바뀌므로써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는 경우를 내적 변화에 의한 파생이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예들을 일부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모음 교체에 의한 경우: 파랗다/퍼렇다, 노랗다/누렇다, 기름하다/가름하다,
 줄줄/줄줄

자음 교체에 의한 경우: 발갡다/빨갡다, 감감하다/깜깜하다/캄캄하다,
 빙빙/핑핑

내적 변화에 의한 파생은 의성어 및 의태어와 색채어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이들이 음성 상징에 의한 대립쌍을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색채어의 경우 모음 교체는 색채의 명암(明暗) 차이를 드러내 주고, 자음 교체는 색채의 농도(濃度) 차이를 드러내 준다. 예컨대 ‘파랗다/퍼렇다’의 경우 ‘파랗다’는 색채가 밝음을, ‘퍼렇다’는 색채가 어두움을 나타내며, ‘발갡다/빨갡다’의 경우, ‘발갡다’는 색채가 열음을, ‘빨갡다’는 색채가 짙음을 나타내 준다.